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최윤희*,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Yun-Hee Choi(haneunice@hanmail.net)*, Hyuk-Jun Moon(mhyukj@catholic.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의 7차 자료(2014) 중 72-79개월 1,408명의 유아와 그들의 부모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4.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t-test,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 후 대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양육행동 | 사회적 유능성 | 통제적 | 온정적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sis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data of 1408 child 72-79 months and their parents were extracted from the 7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2014 by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according to gender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father's warmth parenting behaviors. Second, mother's warmth and control parenting behaviors and father's warmth parenting behaviors influenced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ut, father's control parenting behaviors didn't influenced the social competence of their children. After discussing these and then a conclusion and proposal were presented.

■ keyword : | Parenting Behaviors | Social Competence | Control Parenting | Warmth Parenting |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

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화를 전수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기술, 즉 개개인의 사

접수일자 : 2018년 05월 14일

수정일자 : 2018년 07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17일

교신저자 : 문혁준, e-mail : mhyukj@catholic.ac.kr

회적 유능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잘 수용되거나 또는 거부되기도 한다. 사회적 유능성이란 주어진 맥락과 문화 내에서 가치있게 여겨지는 대인간 목적과 사회적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고, 정서, 행동을 통합하는 능력이며[1] 좁은 의미로는 유아들이 집단에서 원만하게 적응하며 조화롭게 지내는 능력을 일컫는다[2]. 사회적 유능성이 잘 발달된 사람은 쉽게 관계를 맺으며 일의 성취에 있어서 유능함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은 생의 초기부터 발달되는데 영유아가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획득한 경험의 질은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유아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며 타인에게 잘 용납되고 유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되며 학령기의 학업성취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유능감이 낮은 유아는 또래에게 거부당하며 외로움과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며 이는 자신감 결여와 문제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3].

유아기에 사회적 유능감을 건강하게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발달은 상호연관이 있기 때문이며 누적성이라는 발달의 특징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유아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능력이 발달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며 적극적인 관계형성으로 인해 신체적 발달이 일어난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이후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달의 초기인 유아기에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하여 연구가 되어왔는데 이는 크게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개인의 변인 그리고 부모 관련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가정의 경제력[4], 형제구조[5] 등이 있으며 유아 개인의 변인으로는 성차[6], 기질[8] 등이 있다. 부모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징[9]이나 양육행동[10]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유아의 특성 중 성차에 관한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성차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연구[6]와 없다는 연구[11]들이 공존하고 있어 이에 관한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로 가장 활발한 연구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다. 유아를 둘러싼 모든 체계들은 직·간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체계는 역시 유아를 둘러싼 미시체계이며 그 중에서도 주양육자인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영유아와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상호작용한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이 되었다[7-9]. 또한 핵가족과 여성의 사회활동이라는 시대적 특성으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의 가사, 양육의 분담이 사회적 요구가 되었고 과거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3.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2014년도(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Listwise 제거 방식(결측치가 하나라도 있는 사례를 제

거하는 방식)으로 결측치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408 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는 723명(51.3%), 여아는 685명(48.7%)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월령은 72개월에서 79개월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31-40세가 1157명(82.1%)으로 가장 많았고 41-50세가 478명(14.3%), 30세 이하가 46명(3.3%), 51세 이상이 4명(0.3%) 순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또한 31-40세가 907명(64.4%)으로 가장 많았고 41-50세가 478명(34.0%), 50세 이상이 13명(0.9%), 30세 이하가 10명(0.7%) 순이었다.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1,408

항목	구분	N	%
유아의 성별	남아	738	51.5
	여아	696	48.5
어머니의 연령	30세 이하	46	3.3
	31~40세	1157	82.1
	41~50세	201	14.3
	51~53세	4	0.3
아버지의 연령	30세 이하	10	0.7
	31~40세	907	64.4
	41~50세	478	34.0
	51~56세	13	0.9

2. 연구도구

2.1 양육행동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된 양육행동 도구는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0]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하였다. 7차년도 조사에서는 온정적 양육행동 6문항과 통제적 양육행동 6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제적 양육행동은 ‘나는 아이가 공중도덕을 지키도록 한다’,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86,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73, 아버지

의 온정적 양육행동 .86,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 .79로 나타났다.

2.2 사회적 유능감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된 사회적 유능감의 측정도구는 Gresham과 Elliott[12]의 도구를 서미옥[13]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교사평정용과 부모평정용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평정용의 자료만 사용하였으며 4개 하위 영역의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영역 중 주장성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놀이를 할 때 다른 아이에게도 같이 하자는 말을 하기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1문항이다. 협력성은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수업 중에 학업을 잘 수행하기 등의 6문항, 자기통제는 동료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기,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기 등의 7문항, 마지막으로 책임성은 놀이를 할 때 규칙과 순서를 지키기, 부모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기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아니다(1점)~매우 자주 그렇다(3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 영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 변인의 Cronbach's α 값은 자기통제 .80, 협력성 .82, 책임성 .78, 주장성 .83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PSS 24.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연구 변인의 하위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

육행동은 $M=3.63(SD=.53)$,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M=3.46(SD=.48)$,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M=3.52(SD=.58)$,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M=3.30(SD=.56)$ 으로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의 온정적이거나 통제적인 양육행동의 정도가 아버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평정한 유아의 사회적유능감은 자기통제가 $M=2.52(SD=.36)$, 협력성 $M=2.01(SD=.41)$, 책임성 $M=2.26(SD=.33)$, 주장성 $M=2.37(SD=.36)$ 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연구변인		N	M	SD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1408	3.63	.53
	통제적 양육행동	1408	3.46	.48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1408	3.52	.58
	통제적 양육행동	1408	3.30	.56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자기통제	1408	2.52	.36
	협력성	1408	2.01	.41
	책임성	1408	2.26	.33
	주장성	1408	2.37	.36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자기통제($M=3.46, SD=.48$), 협력성($M=3.46, SD=.48$), 책임성($M=3.46, SD=.48$)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나 주장성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변인	N		M(SD)		t
	남아	여아	남아	여아	
자기통제	723	685	2.48 (.36)	2.56 (.35)	-4.34***
협력성	723	685	1.95 (.39)	2.08 (.41)	-5.96***
책임성	723	685	2.22 (.33)	2.29 (.33)	-4.22***
주장성	723	685	2.36 (.36)	2.38 (.36)	-1.23

*** $p<.001$

3.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를 전체의 30% 수준에서 상·하 집단으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가 있었다. 결과는 [표 4][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N	M(SD)	t
사회적 유능감	자기통제	452	2.65(.32)	12.43***
		339	2.34(.36)	
	협력성	452	2.13(.41)	9.03***
		339	1.87(.39)	
책임성	452	2.38(.32)	12.62***	
	339	2.10(.30)		
주장성	452	2.48(.35)	9.89***	
	339	2.23(.35)		

*** $p<.001$

표 5.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N	M(SD)	t
사회적 유능감	자기통제	529	2.58(.35)	5.16***
		342	2.45(.36)	
	협력성	529	2.09(.40)	5.83***
		342	1.93(.40)	
책임성	529	2.33(.33)	7.18***	
	342	2.17(.32)		
주장성	529	2.43(.35)	4.93***	
	342	2.31(.37)		

*** $p<.001$

4.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따른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정도를 각 30% 수준에서 상·하 집단으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지만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정도에 따라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는 [표 6][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N	M(SD)	t
사회적 유능감	자기통제	587	2.59(.34)	5.35***
		293	2.45(.37)	
	협력성	587	2.06(.41)	3.87***
		293	1.95(.39)	
	책임성	587	2.31(.32)	3.80***
		293	2.22(.34)	
주장성	587	2.43(.35)	4.83***	
	293	2.31(.37)		

*** $p < .001$

표 7.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		
		N	M(SD)	t
사회적 유능감	자기통제	445	2.52(.35)	-.42
		325	2.53(.37)	
	협력성	445	2.03(.39)	.35
		325	2.02(.43)	
	책임성	445	2.27(.32)	-.55
		325	2.29(.34)	
주장성	445	2.40(.33)	1.32	
	325	2.37(.40)		

5. 부모의 양육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IF 값은 1.10-1.14, Durbin-Watson 값은 1.91-2.01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F값도 $p < .001$ 수준에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은 13%로 나타났다. 그 중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beta = .32, p < .001$)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사회적 하위요인인 협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beta = .22, p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beta = .10, p < .05$),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beta = .08, p < .01$)이 이에 영향을 주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중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은 15%로 나타났

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beta = .33, p < .001$)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beta = .10, p < .001$), 그리고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beta = .06, p < .05$)이 이에 영향을 주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중 주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9%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beta = .27, p < .001$)과 통제적 양육행동($\beta = .08, p < .01$)이 이에 영향을 주었다. 결과는 [표 8][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8. 부모의 양육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1

		사회적 유능감			
		자기통제		협력성	
		B	β	B	β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21	.32***	.17	.22***
	통제적 양육행동	.07	.09***	.07	.08**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03	.04	.07	.10*
	통제적 양육행동	-.01	-.02	-.00	-.01
F		51.33***		31.48***	
R ² /adj. R ²		.13/.13		.08/.08	
VIF		1.10-1.14		1.10-1.14	
Durbin-Watson		1.91		2.01	

* $p < .05$, ** $p < .01$, *** $p < .001$

표 9. 부모의 양육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2

		사회적 유능감			
		책임성		주장성	
		B	β	B	β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20	.33***	.18	.27***
	통제적 양육행동	.04	.06*	.06	.08**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06	.10***	.02	.03
	통제적 양육행동	-.01	-.02	.03	.05
F		5.59***		36.58***	
R ² /adj. R ²		.15/.14		.09/.09	
VIF		1.10-1.14		1.10-1.14	
Durbin-Watson		1.91		1.93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계속되고 있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또한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라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아가 남아에 비해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현미·도현심[14], MacDonald와 Parke[1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인데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사회성 발달이 더 빠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1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난 하위변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은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반면 주장성은 남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가 높게 나타난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의 욕구를 조절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주장성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여아와 남아를 다르게 양육하는 양육행동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Barnett와 Kleiber[17]의 연구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대한 성인의 기대가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행동에 대한 성차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사회가 많이 변화되어 남녀 평등의 가치가 보편화되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그리고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8][9][14]. 그러나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를 주지 못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16]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설정해주는 행동을 말한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그렇지 못한 것은 자녀의 행동을 제한시키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자녀들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권희경[16]은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때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입장에서 지시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행동을 조절해 주는 양육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그리고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각 하위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가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일관적 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또래 사회에 잘 수용된다는 Perlman과 Ross[18]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해 임연진[19], 임현주[2]의 연구에서는 온정적 양육방식 뿐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적절한 통제로 한계를 설정해주는 양육방식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반응적이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는 일치하지만 아버지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도 출되었다. 이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방식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자라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에 대한 역할모델이 없거나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그대로 자신의 양육방식에 적용되어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답습하게 된다[20]. 그러므로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양육의 기술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부모교육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부모교육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21]. 물론 대면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부모교육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모교육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필요

를 본 연구에서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해 고찰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의의로 삼고자 한다. 특히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는 달리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에 성차가 나타난 것도 단순히 성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제한점을 밝히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성별에 의한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가 나타나 그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논의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후속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단 연구를 할 수 있는 패널자료를 통해 유아동기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 변화에 대한 추적 연구를 통해 시기에 맞는 발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L. O. McCay and D. W. Keyes,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in the Inclusive Primary Classroom," *Childhood Education*, Vol.78, No.2, pp.70-78, 2002.

[2] 임현주, "유아 변인, 가족 간 상호작용, 양육변인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5권, 제1호, pp.183-206, 2018.

[3] G. W. Ladd, "The Fourth R: Relationships as Risks and Resources Following Children's Transition to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Division Newsletter*, Vol.19, No.1,

pp.7-11, 2000.

[4]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유아의 성, 기질, 가정의 월수입,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5권, 제5호, pp.359-382, 2010.

[5] 김언경, 엄정애, "유아기 형제간 사회적 놀이와 형제구조, 기질, 또래유능성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제33권, 제5호, pp.161-179, 2013.

[6] 안라리, 김희진,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46권, 제2호, pp.1-12, 2008.

[7] 이찬숙, 현은자, "유아의 기질, 사회적 유능감, 감성지능, 도덕성 및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9권, 제3호, pp.223-238, 2008.

[8] 류관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 *아동교육*, 제21권, 제3호, pp.231-240, 2012.

[9] 김영선, 이숙,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36권, 제1호, pp.163-185, 2015.

[10]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10호, pp.123-133, 1999.

[11] 조복희, 양연숙, 김압이, 장미자, 광혜경, 한유미, "논문편: 유아의 애착행동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 문제해결력과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35권, 제6호, pp.249-259, 1997.

[12] F. M. Gresham and S. N. Elliott,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American Guidance Service, 1990.

[13] 서미옥,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24권, 제2호, pp.223-242, 2004.

[14] 김현미, 도현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

- 계,” 아동학회지, 제25권, 제6호, pp.279-298, 2004.
- [15] K. MacDonald and R. D. Parke,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Vol.55, No.4, pp.1265-1277, 1984.
- [16] 권희경,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및 양육 효능감에 관한 연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제21권, 제1호, pp.83-104, 2017.
- [17] L. A. Barnett and D. A. Kleiber, Concomitants of playfulness in early childhood: Cognitive abilities and gende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14, No.1, pp.115-127, 1982.
- [18] M. Perlman and H. S. Ross, “If-then Contingencies in Children’s Sibling Conflicts,” *Merrill-Palmer Quarterly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51, No.1, pp.42-66, 2005.
- [19] 임연진,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1호, pp.113-124, 2002.
- [20] 김진경, 이정미, 강은영, “아버지의 원부모 애착 표상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제22권, 제1호, pp.65-89, 2018.
- [2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 세부사업실적,” <http://www.familynet.or.kr/index.jsp>

문혁준(Hyuk-Jun Moon)

정회원



- 1997년 : Michigan State University Ph. D.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 부모자녀관계, 보육정책, 아동발달

저자소개

최윤희(Yun-Hee Choi)

정회원



- 2017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발달과 환경